영어 글쓰기교실 인터뷰
– 권진아 선생님

학내기관 탐방

이 형 진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연구교수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학생들의 영어 글쓰기 실력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영어 글쓰기교실"을 방문하였다. 인터뷰에는 "영어 글쓰기교실"을 담당하고 계신 기초교육원 권진아 선생님이 참여해 주셨다.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에서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글쓰기 실력 향상을 위해, '한국어'로 작성된 글을 대상으로, 일대일 글쓰기 지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어 글쓰기에 대한 상담 신청이 저희에게 들어온 경우 "영어 글쓰기교실"을 안내한 적도 있었는데요, 대상 언어는 다르지만 제공 프로그램이 유사한 유관 기관으로서 "영어 글쓰기교실" 운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 역시 "영어 글쓰기교실"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을 것 같아 인터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영어 글쓰기교실"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영어 글쓰기교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어 글쓰기교실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영어 글쓰기 실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05년 가을학기에 처음 문을 열고, 일대일 글쓰기 상담과 워크숍 두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대일 상담은, 교내 영어강의의 숫자가 많아지고 국제교류의 기회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영역 중 하나인 글쓰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외국어로 글을 쓰는 것이다 보니 우리말 글쓰기와는 다른, 구조의 문제에서부터 표현이나 문법에 이르기까지 학생들마다 다양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수업의 경우, 여러 가지 제한들로 인해 학생 개개인의 눈높이에 맞춰

꼼꼼하게 살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일대일 상담은 학생들이 고급영어실력을 갖춘, 훈련받은 대학원생 상담조교들과 일대일로 본인의 글을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영어 글쓰기에서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 짚어보고 글을 쓰며 갖게 된 질문들을 풀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본인의 글을 검토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생각해보는 경험은 당장 검토하는 글 자체를 수정하고 발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앞으로도 계속 영어로 글을 쓰게 될 것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특히 좋은 공부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영어 글쓰기교실에서는 말하기, 듣기, 읽기 등 여러 영역과 관련된 주제로 1년에 60회 정도 워크숍을 열고 있습니다. 학술논문 쓰기에서부터 발음향상법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유익한 지식과 정보, 심층적인 연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니, 학생들이 이러한 유용한 기회를 잘 활용해주었으면 합니다. 워크숍 스케줄은 영어 글쓰기교실 홈페이지(cep.snu.ac.kr/cepwc)에 공지하고 모든 교내구성원들에게 이메일로 알려주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메일주소를 잘 쓰지 않는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글쓰기교실 페이스북 페이지(facebook.com/cepwc)를 통해 편리하게 일정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글쓰기 상담의 경우, 지금까지의 이용자 수나 상담 현황 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학기의 예를 들자면, 한 학기 동안 총 670회의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글쓰기 교실에서는 매일 9시부터 5시까지 4명의 상담조교가 총 28회의 글쓰기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찾아올 수 없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본원이 문을 닫는 5시 이후부터는 도서관 기초교육정보실 내 공동학습실에 위치한 도서관 분원에서 2시간 동안 4회의 상담을 제공하여 늦은 시간에도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기마다 실제 상담 받는 학생 수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렇게 해서 매학기 대체로 600회에서 800회 정도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원생들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 자격과 이용방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영어 글쓰기교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수강학기 내 의무적으로 1회 글쓰기상담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대학영어 1〉 수강생들이 방문학생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강과목의 페이퍼나 논문, 유학, 취업 관련 글을 가지고 방문하는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글의 종류는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영어강의에 제출할 글쓰기 과제물이나 발표문에서부터 논문, 이력서 및 유학 관련 서류 등 영어로 쓴 글이라면 종류를 막론하고 상담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글을 미리 써가지고 와야 하며, 상담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되어 있는 만큼 글의 길이는 A4 용지 한 장 이내로 제한됩니다. 조금 긴 글을 한 번에 상담 받고자 한다면 상담시간 2회를 연속으로 예약해서 1시간 동안 상담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학기말에 가까워지면 의무방문 학생들이 밀려 예약이 힘든 경우가 있으니, 학기 초나 방학기간을 이용하면 좀 더 원활하고 여유 있게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60회 정도의 워크숍이 개최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제로 워크숍이 열리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워크숍은 학생들이 영어를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최대한 아우르려고 노력하되, 학술적인 글쓰기에 초점을 맞추어 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의 참석률이 가장 높은 워크숍들도 학술논문 쓰기와 관련된 주제들이기도 하구요. 논문쓰기에 관련된 워크숍들은 자료인용법, 초록 쓰는 법, 학회발표문 쓰는 법, 학술적 스타일의 글쓰기 등 특정 장르나 기술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인문사회계를 위한 논문 작성법, 이공계생을 위한 논문 작성법처럼 전공별로 구분해서 열기도 합니다.

또한 시기별 효과를 고려하여, 영어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프레젠테이션 하는 법, 페이퍼 쓰는 법, 교실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법 등의 주제는 학기 초에 배치하고, 학생들이 좀 더 여유가 있는 방학기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방학 중에는 3-4회로 이루어진 워크숍 시리즈를 기획하여 보다 풍부하고 심층적인 지식과 연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겨울방학에는 '한국 학생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와 '영어식 문장 쓰기' '이공계생을 위한 영어논문 작성법' '발음향상법' , '이공계 영어논문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들' , '학회발표문의 작성과 발표' 등 여섯 개 주제의 워크숍 시리즈를 열어 학생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크숍 주제를 학술적인 영역에만 한정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 관련 주제들, 즉 영어인터뷰라거나 자기소개서 쓰는 법같은 워크숍은 학생들의 필요를 고려하여 시기를 막론하고 꾸준히 열고 있으며, 영어권 문화의 이해와 관련된 워크숍들도 꾸준히 개발하여 열고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영어 글쓰기교실을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 있다고 생각하시는 점은?

글쓰기 상담이나 워크숍에 한번 참여한 학생들이 반복해서 찾아온다거나 친구의 추천으로 글쓰기교실을 찾아온 학생들을 볼 때, 저희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영어글쓰기교실의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일대일 글쓰기 상담과 영어 글쓰기 워크숍이 교내 영어 프로그램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꽤 자리를 잡기는 했지만, 설문조사를 해보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모르는 학생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영어 글쓰기에 대한 요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편리한 교내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홍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만큼 학생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